

인터뷰 II

정갑득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

지난 5월 19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정갑득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민간부문 최대조직으로 지난 10년동안 한국노동조합운동을 선도해왔지만, 작년 고용안정투쟁이후 조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정갑득 위원장을 5월 21일 서면 인터뷰했다.

문: 직접 찾아 뵈어야 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인터뷰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나마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와 임기 중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감사합니다. 선거 전에 이미 체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당선 후 노동조합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 노조의 위상은 붕괴되었고 현안문제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정상화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뛸 생각입니다. 중단된 업무를 원상회복하여 "노동조합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구나"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고 현장 조직력 회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의 힘을 바탕

으로 빼앗긴 10년의 성과를 되찾고,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는 1800여 무급휴직자 동지들을 조기에 복직시키고 고용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신임 집행부에 맡겨진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문: 2차까지 가는 치열한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가 들어섰습니다.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하며, 조합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답 : 2차 선거에서 51%의 득표로 당선, 상대후보와 900표, 과반수에 300표 차로 통과되어 외형상 높지 않은 지지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민주파의 분열과 작년 고용안정 투쟁 패배이후 조합원들이 '싸워 보았자 소용없다'는 좌절감속에 '살리나 쌩기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큰 부담입니다.

조합원들은 투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민주 활동가와 조직에 묻고 있으며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은 초토화되어 회사의 일방통행만이 존재하고 감시와 통제, 노동강도강화에 조합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 작년 대량고용조정 사태 이후 노조의 조직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현장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사측의 현장장악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 방침은 무엇입니까?

답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는 노동조합은 안중에도 없고 단체협약 파기를 아주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정상화는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현장 조직력을 회복하여 힘의 균형이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세에 눌리고 심리전에서 밀리고 있는 조합원, 대의원,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기를 키워 현장에서부터 노사대등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론이나 힘에 밀리지 않는 전략과 전술로 정상적인 협상을 조직해 기득권을 지켜내는 단체협약 사수투쟁을 첫걸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접근, 반드시 해결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노동조합으로 모아 내겠습니다.

문:최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와의 합병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간의 통합문제는 지금까지 어

떻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 : 대의원대회는 8대집행부의 임기를 2001년 7월말까지 확정하는 규약을 개정했고 조합원총회에서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뒤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현대A/S, 현대정공 노조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지부로 통합하고 통합의 시기는 8대집행부에 위임되었습니다. 지부로 통합이 싫다면 당분간 회사가 통합되어도 독립노조의 길도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간의 통합 문제는 현대 3사 통합 문제가 시차를 두며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 단위노조들이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각개약진하는 형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현대의 회사통합은 회사측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기 내 현대 3사가 지부로 통합하고 차기에는 통합선거를 치르면 대의원대회, 조합원 총회 결정사항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아, 현대의 통합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내 조직강화추진팀을 신설하여 통합을 대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 작년 정리해고를 둘러싼 투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현대자동차를 정점으로 하는 원하청 관계가 울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은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위상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자동차 노동조합이 지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취하고자 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회사는 1995년 신경영전략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토요타의 생산성보다 사무실은 1/3수준, 생산직은 1/2수준이라며 30% 인원감축을 통한 원가절감만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왔는데도 노조가 '설마'하며 안이하게 대응하니까 작년에 IMF를 빌미로 치고 들어 왔습니다. 1만여 명이 잘려 나고 1800명의 무급휴직자, 5~6000명의 희망퇴직자가 아직도 울산에 실업자 상태로 떠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가동률이 하락하며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고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자 지역경제나 산업 전후방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노동조합도 고용안정을 올바로 지켜내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려면 조직의 결정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며 전국 총파업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며…."

문: 올 상반기 지하철노조를 선두로 공공연맹 차원의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선 금속연맹 차원의 투쟁도 있었습니다. 이번 투쟁과정에 현대자동차노조는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투쟁에 대한 현대자동차노조 차원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답 : 현자노조는 선거직후 출범도 하지 못한 상태라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투쟁에 기여도 하지 못하고 무슨 평가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려면 조직의 결정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며 전국 총파업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며 충분히 준비해서 일정을 맞추어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쟁을 지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위 질문에 관련한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하반기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 노동운동 내부의 혼란을 조합원 대중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대중의 요구에 따라 투쟁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



> "해답은 현장에 있으며, 조합원 대중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합원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물어보고 투쟁방향을 설정하여 그들과 함께 투쟁의 오와 열을 맞추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 제가 현총련 의장을 맡고 있을 때 마치 현총련 때문에 노동운동이 안되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총련을 해체해도 발전은 담보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속3자 통합이 안되어 노동운동이 안되는 것처럼 말해 주도적으로 나서 3자통합을 실현했는데도 나아진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해 본 것은 산별노조건설이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정당건설뿐입니다. 잘 안되면 산별노조가 아니기 때문이며, 노동자 정당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산별노조를 만들어도 안되고, 정당을 건설해도 노동자들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이 부족했고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질책을 떠안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해답은 현장에 있으며, 조합원 대중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합원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물어보고 투쟁방향을 설정하여 그들과 함께 투쟁의 오와 열을 맞추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문: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사태는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러한 도전은 노동조합운동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전체 노동조합운동 차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IMF이후 정규직 노동자는 급격히 줄어 들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입니다. 조합원 가입대상이 줄어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떨어지는데 노동운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하청, 일용, 파견, 지원, 용역 등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흡수하려면 민주노총이 나서서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관계를 적극 관철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사회개혁투쟁이며, 단위사업장의 임단투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요구와 투쟁으로 훨씬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대의명분을 갖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충분히 승산있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월간「노동사회」는 노동조합운동을 위해 애쓰고 있는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운동가, 노조간부들이 주요 회원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노동사회」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현실이 너무 어렵지만 99년 임단투를 통해 극복할 것입니다. 현장이 살아야 금속이 살고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운동이 살아납니다. 당장은 내실을 기하는데 치중하고 조합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국의 노동형제들과 투쟁의 현장에서 뜨겁게 다시 만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